

광주시-핀란드, 문화 교류 확대

강 시장, 빼카 메조 대사 접견 디자인 등 비전 공유·협력 논의 핀란드, 내년 광주비엔날레 참여 市, 헬싱키 디자인워크 작품 전시



강기정 광주시장(왼쪽)이 지난 6일 북구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빼카 메조 주한 핀란드 대사와 지식인 홍보대사,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디자인 강국 핀란드가 디자인·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한다. 강기정 시장은 6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빼카 메조(Pekka Metsu) 주한 핀란드 대사를 접견하고 우호관계 증진을 논의했다. 강 시장과 메조 대사는 올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주한대사 광주 방문과 광주비엔날레 개막 행사에 이어 3번째 만남이다. 특히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에 앞서 이뤄진 이날 접견에서는 디자인과 문화콘텐츠 비전 공유 및 교류 협력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 메조 대사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참여 기업인 핀란드 '루망'의 자작나무 친환경 작품 등을 소개하고 "올해 경험한 광주비엔날레를 되짚어보면 국가전시관인 파빌리온 등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핀란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캐릭터 '무민'으로 유명한 디자인 강국 핀란드는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양 국가와 도시 간 발전을 위해 핀란드와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시는 이번 접견이 문화예술 교류의 증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헬싱키 디자인워크 상호 교류와 광주-헬싱키 등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핀란드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이어, 2024년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 국가전시관이 파빌리온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4년 핀란드 헬싱키 디자인워크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와 우수디자인을 전시할 계획이 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내년 철도건설 예산 3092억원 확보

전년보다 73억 증가...철도망 구축사업 '탄력'

내년 전남지역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전남지역 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안으로 3092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73억 원(2.4%)이 늘었다. 전남도는 애초 관련 부처 예산에 2596억원을 편성한 데 따라 기획재정부 등에 사업의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496억원(19.1%)이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경우 광주송정-무안국제공항-목포까지 총연장 78.3km 건설에 필요한 242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광주송정-보성, 순천까지 총연장 121.5km를 건설해 최고속도 250km/h 수준

의 준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38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성-목포 임성리 간 남해선 철도건설사업도 289억원을 반영해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1억원)도 확보. 지난 2004년 리모델링 후 20년 만에 개량하는 사업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확보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 전남지역 철도망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전남 대도약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10월 국제남도음식문화축제 오세요"

전남도, 서울서 사전 행사...홍보대사 위촉·푸드 트럭 출정식

제 29회 국제남도음식문화축제(10월 6일-8일·여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도가 '붐업'(boom up) 조성에 나섰다. 전남도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남도음식문화재단과 사전 홍보행사를 열고 성공 개최 분위기 확산에 힘을 쏟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득 셰프와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 윤희정 아나운서, 6인조 아이돌 보이그룹 저스트비, 7인조 아이돌 걸그룹 시그니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도음식이 세계적인 케이-푸드 열풍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22개 시·군 대표 음식 및 명인 대표 음식, 남도 증가음식관, 15개 나라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미식관과 미식산업관 등이 운영되고 남도 전통주, 유명 특화빵 전시, 남도장터유에스(US), 아마존 입점업체 우수 상품 등도 전시된다. 2부 행사에서는 서울광장, 여의도 한강공원 등

을 돌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도 명인음식과 대표 시식음식을 체험하게 하는 '남도음식 게릴라 푸드 트럭 출정식'도 열렸다. 지난 1994년 시작한 남도음식문화재단은 30년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음식축제로, 올해부터 국제행사로 확대되면서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전남도는 올해 남도음식 세계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남도음식에 대한 'K 푸드 산업화'를 적극 도모하는 등 참여형 축제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22개 시·군 대표 음식 및 명인 대표 음식, 남도 증가음식관, 15개 나라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미식관과 미식산업관 등이 운영되고 남도 전통주, 유명 특화빵 전시, 남도장터유에스(US), 아마존 입점업체 우수 상품 등도 전시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현안' 해법·발전 방향 모색 시민대토론회

전일빌딩 245 대강당서 12·13일 '오월의 대화'

5·18기념재단·행사위 등 상호 토론...시민 의견 청취

5월 관련 단체 간 갈등과 분열, 광주시의 부실한 5·18 행정 등 5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의 공론의 장이 열린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와 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운)는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간에 걸쳐 전일빌딩245 대강당에서 '오월의 대화' 시민대토론회를 연다. 5월 문제 공론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위한 자리로, 시민들과 관련단체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12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1차 토론회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학생 100명이 참여해 '내일의 5·18을 상상하자'라는 주제로 토론을 갖는다. '나에게 5·18은 00000다'라는 5·18에 대한 메시지를 개인별로 작성하고, 10여명을 무대로 초청해 5·18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2차 토론회는 5월 단

체와 시민단체, 5·18기념행사위원회, 시민 100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시민 참여 신청은 (https://naver.me/5buPX53i)로 하면 된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월문제'와 '5·18기념행사 평가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5·18 공법 3단체와 시민단체, 5·18기념재단에서 각각 생각하는 5월 현안문제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한 뒤 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2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발전방안에 대해 5·18공법 3단체, 5·18기념재단, 5·18행사위원회, 시민사회단체의 상호 토론과 참여 시민의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까지 43주년 행사가 치러진 5·18기념행사를 평가하고, 내년에 열릴 44주년 5·18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다운 광주시의회 5·18특위 위원장은 "이번 시민 대토론회가 난마처럼 얽혀있는 5월 문제 해법의 단초가 되고, 후대에 온전한 5·18 유산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준비하는 '오월의 대화' 시민대토론회 공론의 장에 광주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5·18 특위는 정다운 위원장을 비롯해 명진 부위원장, 강수훈·심창욱·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는 5·18기념사업을 비롯 ▲5·18관련 제도 정비와 교육정책 ▲사적지 및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헌법 전문 수록 ▲전국화·세계화 등 5·18관련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19일 출범해 활동해오고 있다. 앞서 2030세대 광주시의원 5명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일주일 앞두고 '응답하라! 1980'을 주제로 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 오월 광주의 민낯을 조목 조목 파헤쳐 강하게 질타해 주목을 받았고, 이후 특위가 꾸러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서울 청계광장서 직거래장터

완도 전복·나주배 등 농수산물 최대 30~40% 할인 판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남도가 7일 수도권의 소비자들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었다. 이번 장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우수한 전남 농수산물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영광 굴비, 완도 전복, 장흥 무산김, 미역, 천일염 등 신선하고 건강한 수산물과 고품질 유자, 나주배, 무화과, 된장 및 고추장, 식혜 등 지역별 대표 농특산물 등 100여 개 품목을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생산 농가가 상품을 직접 판매해 추석 명절 준비를 보다 저렴한 할 수 있는 대도시 소비자들은 부담을 덜고, 판로가 어려운 농

어업인에게 판매 큰 힘이 되는 '상생' 장터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농수산업 생산·유통 관계자들, 한식 명장들로 이뤄진 (사)대한민국한식포럼 회원들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쌀과 농수산물로 만든 비빔밥을 만들어 시식하며 전남 농수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판촉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깨끗하고 건강한 전남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해주셨으면 한다"며 "전남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남도장터의 '수산물 사랑해 할인 기획전' 등 추석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율하반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식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식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 전형일: 2023. 10. 6(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9(금)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